

내 퇴직연금의 기본값을 정하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내 퇴직연금의 기본값을 정하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김동엽, 오은미 지음

1

디폴트옵션이란?

- 1 디폴트옵션이 필요한 이유는? 14
- 2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대상은? 18
- 3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상품 선정 절차는? 22
- 4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는? 26
- 5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시기는? 30

2

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과 활용 방법은?

- 6 내가 가입한 퇴직급여 종류와 투자상품을 확인한다 38
- 7 내 투자 스타일을 확인한다 48
- 8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58
- 9 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고 확인한다 66
- 10 디폴트옵션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72

3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

- 11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8
- 12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82
- 13 디폴트옵션 상품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88
- 14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92
- 15 펀드 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96
- 16 포트폴리오 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102

4

디폴트옵션, 이런 것도 궁금해요

- 17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까지 110
- 18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이후 적용까지 118
- 19 디폴트옵션 적용 이후 124

2022년 7월 12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쉽게 말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치된 자금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일까요?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래, 전체 퇴직연금의 86%가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등 적립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법적·제도적 기틀은 마련됐으니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 투자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상황을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이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2년 1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두 차례에 걸쳐 상품 심사·승인을 진행했고, 퇴직연금사업자들도 대부분 제도적인 정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디폴트옵션 선택을 앞두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시행 배경과 취지 등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 2장에서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선택과 활용 프로세스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 투자 스타일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고, 그에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상품별 특성을 살펴봅니다. 디폴트옵션의 위험 등급별로 각각의 상품 종류를 살펴보고,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며 가지게 되는 궁금증들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도 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선별적으로 찾아 읽어도 좋도록 구성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디폴트옵션 선택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디폴트옵션이란?

1. 디폴트옵션이 필요한 이유는?
2.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대상은?
3.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상품 선정 절차는?
4.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는?
5.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시기는?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부쩍 자주 듣습니다. 도대체 디폴트옵션이 뭐기에 상품을 선택하라 마라 하는 걸까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래 ‘디폴트(default)’란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을 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컴퓨터 이용자가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시스템 자체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글꼴을 지정하지 않으면 바탕체를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디폴트옵션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바깥의 금융회사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보관한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립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서 낮은 금리로 운용될 겁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수익률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디폴트옵션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미리 정해 둔 금융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 운용 방법을 사전에 정한다고 해서 관련 법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합니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12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면서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옵션은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 재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긴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계산식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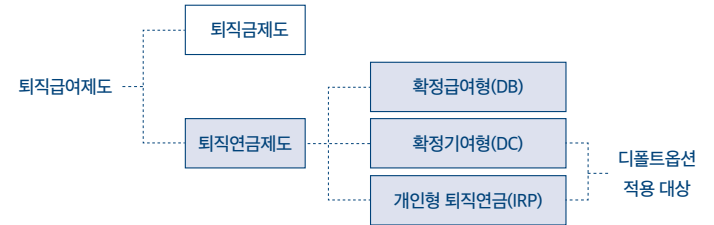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그해 총 급여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

금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이체해 줍니다. 근로자는 자기 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정하고 성과에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할 때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고 나쁘면 덜 받게 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습니다. IRP의 쓸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후자금을 저축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대신 근로자 전원이 IRP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가입 목적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IRP 가입자도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한 돈을 스스로 운용하고 그 성과에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용 성과가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려고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폴트옵션을 실시하는 겁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옵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림 1】 퇴직급여 종류와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



회사에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디폴트옵션 도입과 관련된 당사자에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가진 근로자,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디폴트옵션 도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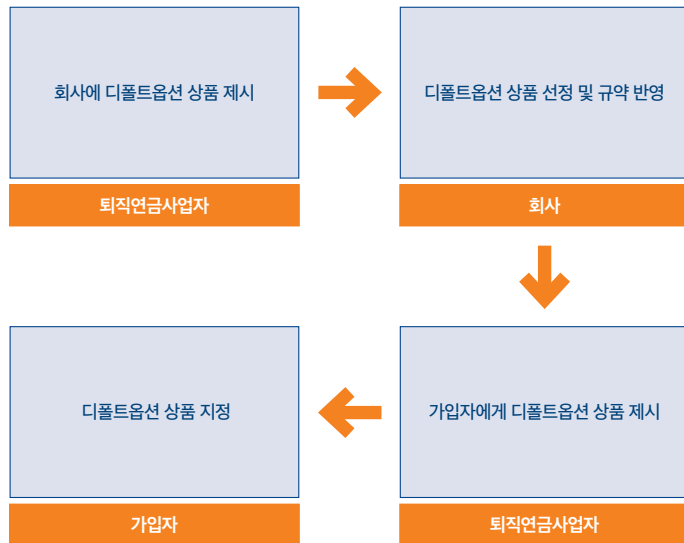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할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정기예금이나 펀드와 같은 개별 금융상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상품을 묶어 포트폴리오 형태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최대 10개까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용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할 차례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해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IRP는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가입자가 자신에게 적용할 디폴트옵션 상품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입자에게 전부 제시해야 합니다. IRP 가입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제시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 중에서 1개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림 2] 디폴트옵션 도입 프로세스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7개에서 10개까지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퇴직연금사업자는 초저위험 상품은 1개, 나머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은 각각 2~3개를 승인받아 두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단일 상품과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상품은 다시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에서 가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예금, 이율보증보험(GIC), 추가연계과생결합사채(ELB)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은행 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보험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받으려면 상시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축은행 예금과 증권사 ELB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펀드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 밸런스드펀드(BF, Balanced Fund), 스테이블밸류펀드(SVF, Stable Value Fund), 사회간접자본(SOC)펀드가 디폴트옵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TDF와 BF만 단독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품은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을 섞어서 운용합니다. 최종 선정된 포트폴리오 상품들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최대 3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트폴리오 상품은 편입 종목에 따라 펀드로만 구성된 것,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것,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을 섞은 것이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 디폴트옵션 상품의 유형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은 어디까지나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미리 운용 방법을 정해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폴트옵션은 언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디폴트옵션 관련 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부담금이 납입되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계속해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후부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정한 상품으로 운용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통지를 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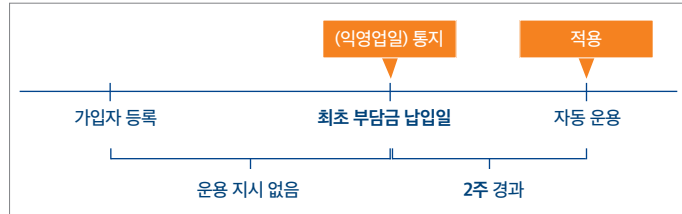
이번에는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났는데도 만기 상환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2주 후부터 만기 상환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이 같은 통지를 받고 2주가 지났는데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즉,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되기까지 신규 가입 건의 경우 2주, 만기 도래 건의 경우

6주가 소요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적립금은 어떻게 운용될까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관리 계약에 따라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2023년 7월 12일 이후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즉시 만기 상환 처리됩니다. 즉, 만기일에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즉시 만기 자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 만기 관리를 소홀히 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림 4] 디폴트옵션의 적용과 통지 시점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입금



만기 도래 금액



2

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과 활용 방법은?

6. 내가 가입한 퇴직급여 종류와 투자상품을 확인한다
7. 내 투자 스타일을 확인한다
8.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9. 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고 확인한다
10. 디폴트옵션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1장에서는 디폴트옵션의 무엇이고, 왜 도입했는지, 누구에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르고,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가입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IRP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가입하고 있다면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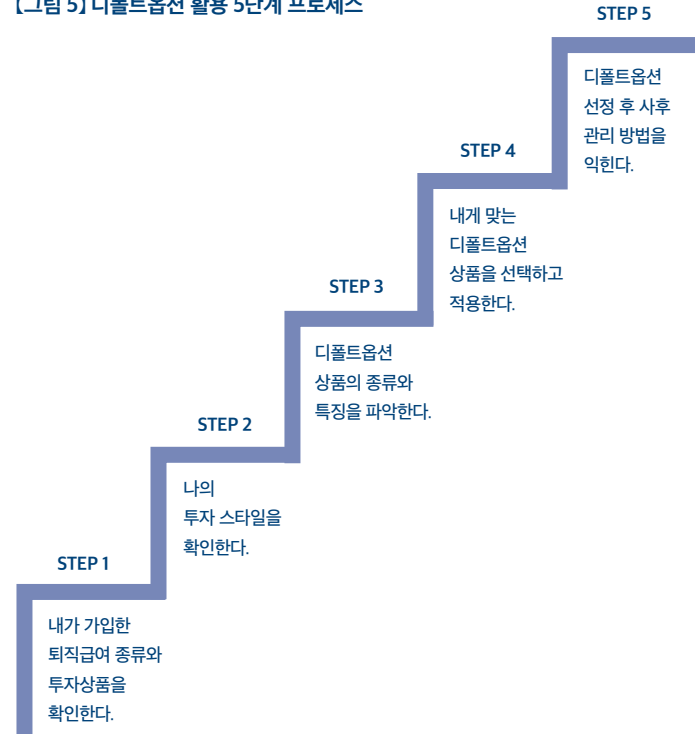
2단계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은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상품을 탐색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관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파악했으면, 3단계에서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파악할 차례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르는 것이 4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사후 관리에

나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때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5] 디폴트옵션 활용 5단계 프로세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나요?” “적립금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단박에 대답하는 이들도 있지만, “글쎄요” 하고 머뭇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도입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처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는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가끔은 자기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조차 모르는 이도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는 했는데 그게 DB형인지 DC형인지 헷갈려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IRP에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미래에 적용할 디폴트 옵션 상품을 고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중인 퇴직연금제도를 파악한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퇴직급여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장래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보관합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긴 퇴직급여 재원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에 따른 손익도 전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퇴직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DB형과 DC형 이외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IRP는 다시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뉩니다. 기업형IRP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지 않고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업형IRP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반해,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요령으로 가입합니다. 기업형이 됐든 개인형이 됐든 IRP 계좌에 적립된 돈은 가입자가 운용합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 연금과 IRP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 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방문해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림 6]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 서비스



적립금과 부담금 투자 방법을 확인한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가입하고 있다면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립금 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투자상품 종류와 손익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싶다면 자신의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면 됩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파악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과 부담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가입자의 퇴직계좌에 이미 쌓여 있는 돈을 말하며, 부담금은 앞으로 퇴직계좌에 입금될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이 쌓이면 적립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담금과 적립금을 같은 상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담금과 적립금을 각각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적립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운용하고, 매달 불입하는 부담금은 주식형 펀드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과 부담금 운용 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에 앞서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이율보증보험(GIC), 증권사 ELB와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 ETF, 리츠 등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골라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마다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을 맡겨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RP 가입자라면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해 적립금을 언제든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 퇴직연금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희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살핀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할 때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표적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편입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펀드와 ETF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TDF(타깃데이트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TDF는 대부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옵션 상품도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 1]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과 위험자산 투자한도

최대 편입 비중	금융상품 종류
100%	예적금, 이율보증보험(GIC), ELB,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주식편입 비중 50% 이하), 적격TDF, MMF,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디폴트옵션
70%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주식 편입 비중 50% 이상) 부동산펀드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와 금리를 확인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펀드처럼 만기가 없는 실적배당상품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ELB 등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실적배당상품 중에도 만기가 정해져 있는 자산은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만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입자가 만기 상환 금액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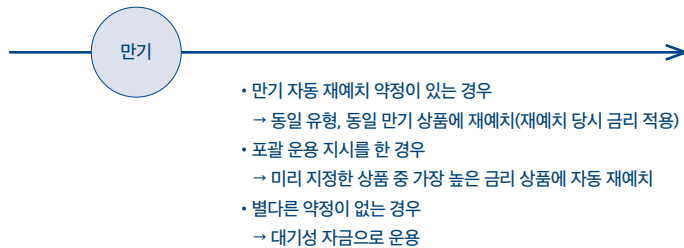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만기 자동 재예치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기 자동 재예치란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기 상환 금액을 이전과 동일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재예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 중에는 포괄 운용 지시 서비스를 선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포괄 운용 지시란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상환 금액을 해당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에 예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기 자동 재예치와 포괄 운용 지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만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면서 만기 자동 재예치와 포괄 운용 지시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이미 약정한 것도 2023년 7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1일 이전이라도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가입자에게는 만기 자동 재예치 약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됐는데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 상환 금액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다가 6주 뒤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그림 7]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 운용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이전>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이후>



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자신이 어떤 투자 성향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투자 성향과 스타일을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제도의 특징을 고려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입자를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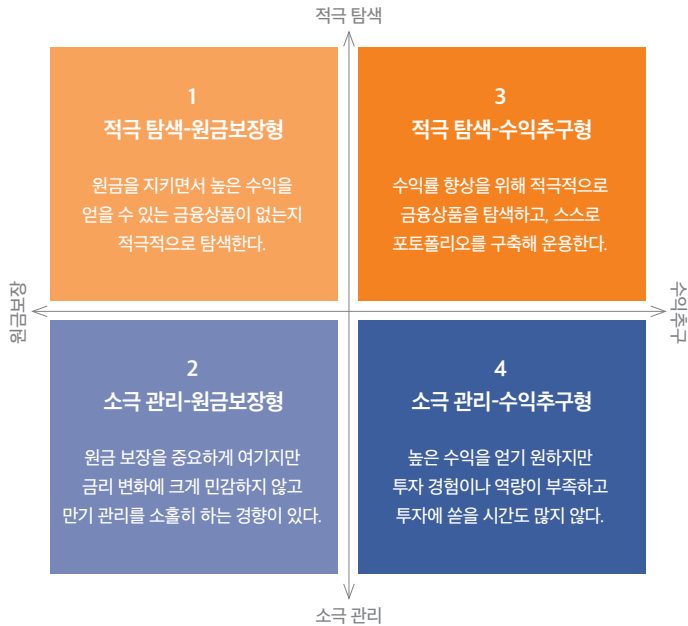
첫 번째 기준은 '원금보장'과 '수익추구'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이라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금보장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금리 정도의 수익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익추구형 가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중금리보다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수익추구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적극 탐색'과 '소극 관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찾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사람은 적극 탐색형에 속합니다. 반면 퇴직연금 운용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어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은 소극 관리형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를 네 가지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스타일에 맞

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무엇이며, 이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림 8] 나의 연금 투자 스타일은?



적극 탐색-원금보장형

원금은 지키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상품은 꺼리지만,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해도 아무 상품에나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면 그걸 찾아 나섭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더라도 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을 찾고, 예금자보호 한도에 맞춰 나눠서 관리하는 불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보험사 이율보증보험, 증권사 ELB 금리를 확인해 봅니다.

이들 중에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포괄 운용 지시를 해둔 이들도 있습니다. 포괄 운용 지시를 해두면 가입 중인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사전에 정한 상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만기 상환 금액을 예치해 줍니다. 포괄 운용 지시를 해두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높은 금리 상품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서 포괄 운용 지시는 금지됐습니다.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 상환 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됩니다.

그렇다면 적극 탐색-원금보장형이 선호하는 디폴트옵션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높은 금리를 주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제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승인할 때 해당 상품이 상시 가입 가능한지 살피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증권사 ELB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정기예금과 보험사 이율보 증보험 정도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때는 금리 변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매월 금리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고 굳이 원리금보장상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저위험 또는 중위험에 해당하는 TDF와 밸런스드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소극 관리-원금보장형

원금보장을 중요하게 여겨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하지만, 애써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을 찾아 나서는 수고까지는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소극관리-원금보장형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금

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금융상품 만기를 꼼꼼히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타일에 비해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자는 만기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만기 자동 재예치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기 자동 재예치 약정이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 상환 금액을 이전에 가입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유형과 만기를 가진 상품에 예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금리는 재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어쨌면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하면서 만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소극 관리-원금보장형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앞으로는 만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면서 만기 자동 재예치 약정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 상환 금액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됩니다.

소극 관리-원금보장형은 어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호할까요? 이들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가입한 금융상품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 이들

에게는 TDF와 같은 투자상품이 생각보다 잘 맞을 수 있습니다. TDF는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적극 탐색-수익추구형

적극 탐색-수익추구형에 속하는 이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투자상품을 발굴하고,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와 포트폴리오 내 자산 비중에 따라 투자상품 비중을 스스로 조정하고 투자상품을 교체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기 금액을 방치해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찾아 직접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스스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을 ‘옵트인(Opt-in)’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옵트인 방법까지 써가며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기존에 퇴직연금상품으로 제공하던 것과 동일한 펀드를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펀드에 디폴트옵션 전용 클래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식형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이용하면 포트폴리오 내 주식 편입 비중을 높여 보다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탐색-수익추구형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고위험이나 중위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적립금을 의도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현금성 자산에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극 관리-수익추구형

소극 관리-수익추구형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적립금을 운용해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고, 바빠서 투자에 쏟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한번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웬만해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투자 관리에 품이 덜 들어가는 TDF와 밸런스드펀드와 같은 자산배분형펀드가 적합합니다.

자산배분형펀드를 선택할 때는 퇴직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젊어서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며 수익을 추구하다가 퇴직 시점에 맞춰 그 비중을 줄여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 TDF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일정 한도 이내에서 관리하고 싶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밸런스드펀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밸런스드펀드는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해 펀드가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정해 줍니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르게 될까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 상품군을 제시할 겁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IRP 가입자에게는 이들 상품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제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받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중에서 1개만 골라 자신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을 확인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초저위

험 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각각 2~3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살펴보면 은행 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보험은 초저위험 등급으로 분류되고, 펀드 유형은 투자 설명서상의 위험도를 준용해 위험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위험 등급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부적합 서류 등을 통해 의사 표시를 하면 디폴트옵션 상품 목록 전체를 볼 수 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와 금리를 확인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 유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예금과 보험사 저이율보증보험(GIC)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과 증권사 ELB도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상시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와 금리를 살펴야 합니다. 은행 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보험의 금리는 매달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때와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한 금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정기 예금과 이율보증보험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1개 금융회사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상품은 운용 전략, 수익과 변동성을 확인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펀드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SOC 펀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TDF와 밸런스드펀드만 단독으로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선정할 때는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먼저 TD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퇴직연금사업자는 주력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TDF를 내놓고 있습니다. 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정하면 펀드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해 주는 펀드입니다. 통상 은퇴 시점을 전후로 가입자가 목표 시점을 정하면 은퇴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비중을 줄여 나갑니다.

밸런스드펀드는 투자 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해 줍니다. 밸런스드펀드를 선택할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을 최대 얼마까지 편입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펀드 내 자산 비중을 리밸런싱하는 시기와 방법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표 2]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펀드를 선택할 때 고려할 리스트

펀드 상품 체크리스트			
단일 상품 <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 <input type="checkbox"/>		
위험 등급 <input type="checkbox"/>	저위험 <input type="checkbox"/>	중위험 <input type="checkbox"/>	고위험 <input type="checkbox"/>
과거 수익률 연 _____ %	변동성 _____ %		
상품 종류			
TDF <input type="checkbox"/>	BF <input type="checkbox"/>		
목표 시점 _____ 년	주요 투자 자산 _____		
현시점 주식 비중 _____ %	최대 주식 비중 _____ %		
목표 시점 주식 비중 _____ %			

펀드 유형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살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펀드의 과거 수익과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존에 운용되는 펀드를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받을 때 판매 수수료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존 상품보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상품은 구성 상품 종류와 비중을 확인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단일 상품도 있지만, 단일 상품을 묶은 포트폴리오 상품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3개 이내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들만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 펀드 상품들만 묶거나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품을 선택할 때는 편입되는 상품 종류와 비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열사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비중이 높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파악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의 특징도 파악했다면, 다음 순서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들 중에서 하나를 자신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한다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펀드에만 투자해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 중에는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 봐야 그것이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번거롭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는 것은 기존에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적용될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디폴트옵션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거래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가입자가 거래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운용 방법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한다고 해서 바로 적립금 운용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은 어디까지나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때에 대비해서 사전에 운용 방법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새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에 부담금이 입금되고 2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만기 상환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제야 디폴트옵션이 작동합니다. 즉,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과 적용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 바로 투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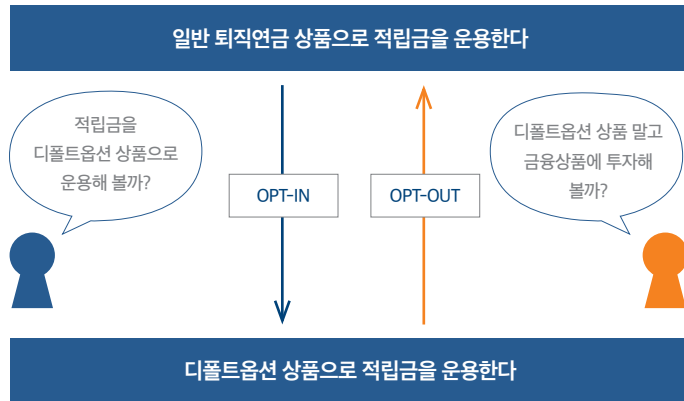
퇴직연금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에 바로 투자할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본래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는 2주 또는 6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하는 것을 ‘옵트인(Opt-i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상환금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디폴트 옵션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옵트인 방법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미 가입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과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에 옵트인 하려면 기존 디폴트옵션 상품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한 상품과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옵트인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서 현재 보유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이 없다면 옵트인 방법으로 다른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9] 디폴트옵션에서 옵트인과 옵트아웃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만기 상환 금액을 대기성 자금으로 내버려둬도 될까요? 반대로 대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이전에도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부담금이 이체되고 2주가 지났는데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까지 2주 또는 6주의 대기 기간이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대기 기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는 부담금과 만기 상환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 지시를 하고 남은 금액에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 상환 금액 9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운용 지시를 했다면 나

머지 700만 원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인 자금을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사업자에게 이 같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에서도 언제든지 '옵트아웃' 할 수 있다

이미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어디까지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합니다. 옵트아웃을 할 때는 별도로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상품을 매수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과 운용 성과를 확인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 금액, 운용 현황, 수익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분기 1회 이상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어떤 기준으로 공시할까요? 원리금보장상품은 공시 시점에 적용되는 적용 이율로 공시하고, 펀드 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을 공시합니다.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평균해 공시하고,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평균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도 장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3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

11.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2.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3. 디폴트옵션 상품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14.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15. 펀드 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16. 포트폴리오 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면 가입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할 때 해당 상품의 위험도,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예금자보호 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디폴트옵션 제도가 적용되는 절차와 디폴트옵션 변경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폴트옵션 상품은 단일 상품과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단일 상품에는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에는 예금, 이율보증보험(GIC), ELB 등이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은행 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보험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받으려면 상시 가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저축은행 예금과 ELB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된 듯합니다.

이번에는 펀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서는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 밸런스드펀드(BF, Balanced Fund), 스테이블밸류펀드(SVF, Stable Value Fund), SOC펀드

가 디폴트옵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상품 형태로는 TDF와 밸런스드펀드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DF와 밸런스드펀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품은 최대 3개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디폴트옵션 가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 전략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상품에는 펀드로만 구성된 것,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것,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을 섞어서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표 3】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할 때 제공해야 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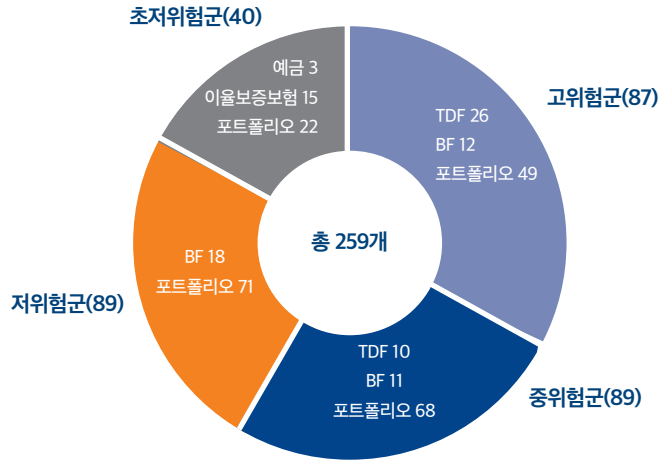
- 디폴트옵션 상품에 관한 정보 사항
 - 위험도, 손실 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예금자보호 한도 등 가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디폴트옵션 적용에 따른 가입자 적립금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디폴트옵션 상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디폴트옵션 제도가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디폴트옵션 상품 변경에 관한 사항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참조할 만한 것이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초고위험 상품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네 가지 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승인받습니다. 위험 등급별로는 초저위험 등급은 1개,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급은 각각 2~3개까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은 모두 306개입니다. 이를 위험 등급에 따라 구분하면 초저위험이 40개, 저위험이 89개, 중위험이 89개, 고위험이 87개입니다.

【그림 10】 위험 등급별 디폴트옵션 상품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2023년 12월 31일 기준)

그러면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과 가입자의 선택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저위험 상품은 시중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원금 손실을 꺼리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초저위험 등급으로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는 은행 예금, 보험사 이율보증보험, 2개 이상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저위험 상품은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저위험 상품부터는 원리금보

장상품 이외에 펀드가 눈에 띄기 시작하지만, 주식 편입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2023년 말까지 승인받은 저위험 등급 디폴트옵션 상품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주식 편입 비중이 낮은 밸런스드펀드가 있습니다.

중위험 상품은 투자에서 얻는 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고, 시중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2023년 말까지 승인받은 중위험 등급 상품 중에는 2개 이상의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상품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 비중을 살펴보면, 예금과 이율보증보험 등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 20~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TDF와 밸런스드펀드와 같은 단일 상품도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은 원금을 지키며 낮은 수익을 얻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고위험 등급 상품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TDF입니다. 2023년 말까지 승인받은 고위험 등급 디폴트옵션 상품은 87개입니다. 이 중에서 TDF와 TDF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합치면 85%가 TDF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 TDF는 대부분

2045년에서 2055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점
 까지 남은 기간이 많은 만큼 TDF 내 편입된 주식 비중이 높습
 니다.

【표 4】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과 선택 기준

위험 등급	선택 기준
초저위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
저위험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가입자
중위험	투자에서 얻는 수익에는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정기예금 금리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가입자
고위험	원금을 지키며 낮은 수익을 얻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수 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많으면 10개나 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살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누가 운용하는지, 위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산에 어떻게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고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과 함께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이, 많으면 10개나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품의 특징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명은 퇴직연금규약은 물론이고 각종 공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합의된 형식에 따라 명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OO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와 같은 방식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제일 앞에는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이름을 제시하고, 그 뒤에는 해당 상품이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위험 등급과 상품 유형이 순서대

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림 11] 디폴트옵션 상품의 이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u>○○증권</u>	<u>디폴트옵션</u>	<u>중위험</u>	<u>TDF</u>	<u>1</u>
퇴직연금사업자		위험 등급	상품 유형	체번

원리금보장상품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승인받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대부분 초저위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첫째, 만기를 살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만기는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편입된 상품의 만기가 전부 동일해야 합니다. 5년 만기 정기예금과 3년 만기 정기예금을 섞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정할 때는 만기와 함께 중도해지 이자율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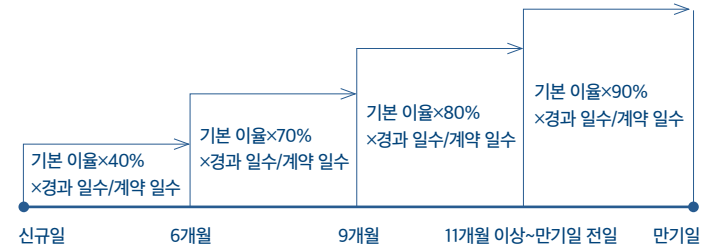
둘째, 예금자보호 한도도 살펴야 합니다. 예금과 이율보증보험은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8,000만 원을 A은행과 B은행 정기예금에 각각 4,000만 원씩 나눠서 적립하고, A은행 정기예금을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B은행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됐습니다. 만기 상환금이 전부 A은행 정기예금에 이체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A은행 정기예금에 8,000만 원이 적립돼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셋째, 만기와 함께 금리도 살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한다고 해서 적립금을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가 지날 때까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제야 만기 상환 금액을 디폴트옵션으로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시점과 적용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 사이에 금리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당시 금리가 아니라 적용하는 시점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림 12】 원리금보장상품의 중도 해지 이율 예시



어떤 종류의 펀드가 디폴트옵션 상품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법에서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SOC펀드만 디폴트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밸류펀드와 SOC펀드는 단독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이 될 수 있는 펀드는 TDF와 밸런스드펀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DF와 밸런스드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 5] 디폴트옵션으로 정할 수 있는 펀드 상품 유형

TDF (Target Date Fund)	투자 목표 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 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상품(단, 퇴직연금에 허용되는 적격 TDF만 가능)
BF (Balanced Fund)	투자 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펀드 내 자산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 수준을 조정하는 상품
SVF (Stable Value Fund)	단기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SOC펀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계획, 관련 사업과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투자하는 상품

TDF의 목표 시점을 확인한다

먼저 디폴트옵션 상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D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DF는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표 시점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TDF라고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TDF가 어떤 금융상품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DF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노후자금을 축적하고 인출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TDF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연금 자산을 맡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초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DF는 적립금을 다양한 국가와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목표 시점(Target Date)에 맞춰 펀드 내 자산 편입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자산 비중 조절은 미리 정한 경로에 따라 진행됩니다.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 비중을 낮춰 나갑니다.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차츰 줄어드는 모습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경로를 닮았다고 해서 글라이드패스(Glide Path)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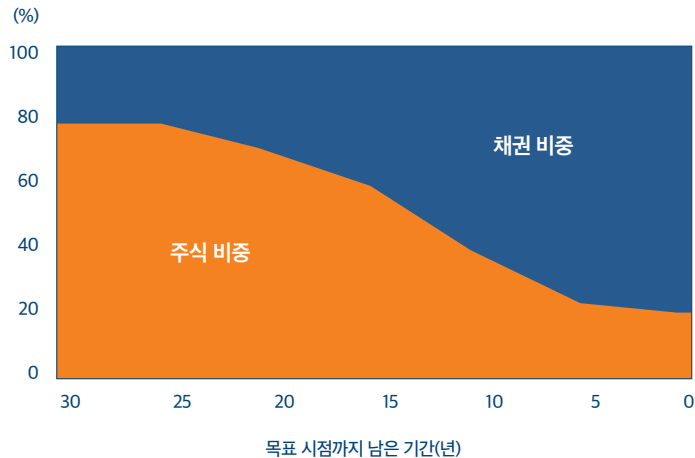
따라서 TDF를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목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TDF 상품 이름에 4자리 숫자가 들어 있는데, TDF의 목표 시점을 나타냅니다. 가령 'OOOO 전략 배분 TDF 2030'이라는 이름을 가진 TDF는 2030년 무렵에 은퇴할 예정인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시점을 표시하는 4자리 숫자를 TDF에서는 '빈티지(Vinta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표 시점을 보면 TDF에 편입된 위험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45 또는 2050처럼 목표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식 편입 비중이 높고, 2025 또는 2030처럼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분석해 보면, 초저위험 상품군에서는 TDF뿐만 아니라 펀드 상품 자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위험 상품부터 TDF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저위험 상품군에서는 단일 상품 형태의 TDF는 없고 포트폴리오에 속한 TDF를 만날 수 있는데, 대부분 2025~2035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서 펀드 내 주식 비중을 낮게 가져갑니다.

중위험 상품군에 포함된 TDF는 2035~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저위험 상품군에 속한 TDF보다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많은 만큼 주식 비중도 높게 가져갑니다. TDF는 고위험 상품군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 2045~2055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많은 만큼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림 13]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TDF 자산배분



밸런스펀드(BF)는 위험자산 한도를 살핀다

이번에는 밸런스펀드(BF)를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펀드는 투자 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펀드 내 자산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입니다. 그렇다면 TDF와 밸런스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TDF와 밸런스펀드는 모두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자산배분펀드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TDF는 연령에 따라 투자자의 위험 허용 한도가 달라진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차츰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정해 나갑니다.

TDF와 달리 밸런스펀드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자산 배분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따라서 밸런스펀드를 선택할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을 최대 얼마까지 편입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비중을 리밸런싱하는 시기와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디폴트옵션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최대 3개까지 상품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구성 상품에 따라 펀드형, 원리금보장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 포트폴리오 형태의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 형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먼저 포트폴리오의 위험 등급을 살펴야 합니

다. 단일 상품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상품의 위험 등급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위험 등급은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된 개별 상품의 위험도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상품의 종류와 비중도 살펴야 합니다. 2023년 말까지 승인받은 포트폴리오 상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저위험 등급의 포트폴리오는 만기가 동일한 두 개 또는 세 개의 예금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예금상품의 만기는 대부분 3년이고,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저위험 포트폴리오에는 예금 이외에 펀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50~70%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혼합형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같은 상품에 자동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위험 포트폴리오도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혼합해서 운용합니다. 다만 저위험 포트폴리오에 비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낮습니다. 중위험 포트폴리오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대부분 3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부 원리금보장상품을 아예 편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위험 포트폴리오는 TDF와 밸런스드펀드로 구성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위험군 포트폴리오 상품 중 91%가 TDF를 편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목표 시점을 2045년부터 2055년 사이로 하는 TDF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일부 원리금보장상품이 편입된 고위험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그 비중은 10~20%에 그칩니다.

[표 6] 포트폴리오 형태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 등급 예시

고위험 포트폴리오	TDF 50% + 혼합형 펀드 40% + 예금 10%
중위험 포트폴리오	TDF 30% + TDF 30% + 예금 40%
저위험 포트폴리오	TDF 30% + 예금 70%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예금 50% + 예금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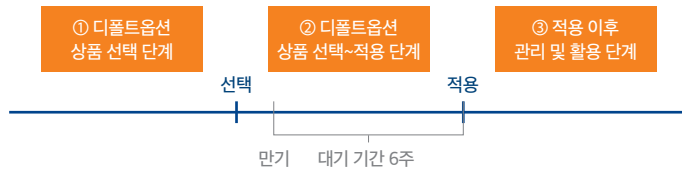
4

디폴트옵션, 이런 것도 궁금해요

17.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까지
18.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이후 적용까지
19. 디폴트옵션 적용 이후

지금까지 디폴트옵션 제도와 상품 그리고 내게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이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니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와 상품, 활용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 이후 적용까지 단계, 적용 이후 사후 관리 단계로 나누어 가입자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15] 디폴트옵션 제도의 진행 과정



퇴직연금 상품 선택과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의 차이점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계좌에 불입되는 부담금과 쌓여 있는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할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면 그 즉시 운용 방법이 바뀝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가 장래에 부담금과 적립금을 방치할 때에 대비해 미리 운용 방법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부담금과 적립금 운용 방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그제야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디폴트옵션 제도는 2022년 7월 12일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언제까지 선택해야 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을 얻는 등의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분기 1회 이상 디폴트옵션 선택과 관련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목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디폴트옵션 상품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나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연금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이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는데,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운용 중이던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대로 운용되고, 이후 새로이 납입되는 금액부터는 디폴트옵션 절차에 따라 새로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즉시 운용 방법이 바뀌나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했다고 해서 만기 자금이 자동으로 그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운용 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만기 상환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만기 상환금이 2주 후부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된다고 통지합니다. 통지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 상환 금액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데,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있던 만기 자동 재예치 제도는 사라지나요?

만기 자동 재예치 서비스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상품을 자동으로 매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는 금지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원리금보장상품 계약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만기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가입자는 유예 기간이 종료 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있던 포괄 운용 지시는 폐지되나요?

원리금보장상품 포괄 운용 지시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 상환 금액을 해당 시점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해 진행되던 것인데, 디폴트옵션 도입과 함께 만기 상환 금액에 대한 포괄 운용 지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1일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내에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유예가 종료되며, 이후 도래하는 만기 자금부터는 포괄 운용 지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만기 자금 외에 부담금, 적립금 등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후 6주의 대기 기간 동안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상품의 약관 및 계약 사항에 따라 약정 금리가 지급되거나, 만기 후 약정 금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상환금에 대해 약정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6주 대기 기간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하고 있던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만기 상환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2주 후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고 통보합니다. 가입자가 만기 도래 후 4주가 경과하기 전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하면, 변경된 디폴트옵션 상품이 통지에 반영됩니다. 만기 도래 후 4주가 경과한 다음에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미 변경하기 전 디폴트옵션 상품이 적용된다는 통보가 나간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지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는 새

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해 디폴트옵션을 적용합니다.

만기 상환 금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기 상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나요?

디폴트옵션 상품은 횡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날까지 변경하면 바뀐 내용을 반영해 디폴트옵션을 적용합니다. 이미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다음에 변경을 하면 과거 적립금은 그대로 기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고 향후 도래하는 만기 자금을 대해서 새로 변경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적용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없나요?

디폴트옵션 제도는 어디까지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 두더라도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오던 가입자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투자하면 됩니다. 즉, 디폴트옵션 상품이 아닌 퇴직연금 펀드 등 다른 상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 만기 자금의 납입 비중이나 회차를 나눌 수도 있나요?

만기 자금은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일에 전액 투자됩니다. 시기를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을 일부만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라면 만기 자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디폴트옵션 증거금 해지)를 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이후 투자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도 변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령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당시에는 성장형이었는데 이후 안정추구형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 적용됐는데,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다음에 디폴트옵션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던 자금은 그대로 두고 향후 만기 자금이 적용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이 달라집니다. 다만 기존에 운용 중이던 적립금까지 전부 변경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옮기고 싶다면 기존 디폴트옵션 적립금을 매도해 새롭게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입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적립금을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이 하나라면 해당 상품을 옵트인(Opt-in;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기 기간 없이 직접 매수) 방식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재예치되나요?

아닙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정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6주간의 대기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6주간의 대기 기간 동안 만기 상환 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투자에도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없이 100% 자유롭게 투자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자산 규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디폴트옵션 상품 투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 투자에는 위험 자산 투자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금 유형별로 다른 디폴트옵션 선정이 가능한가요?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회사 부담금, 경영 성과급 등 자금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디폴트옵션 상품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불입되는 자금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부 하나의 디폴트옵션 상품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DC형 퇴직연금과 IRP 모두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DC형 퇴직연금과 IRP 제도별로 각각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 적용된 후에 기존 퇴직연금 상품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나요?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디폴트옵션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어디까지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상품을 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트아웃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금은 디폴트옵션 제도 절차에 따라 다시 가입자가 사전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디폴트옵션 상품들의 적립액과 운용 현황,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때 원리금보장상품은 공시 시점에 적용되는 적용 이율로, 펀드 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이 공시됩니다.

펀드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평균해 공시하고,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평균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DC형 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했는데 따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나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새롭게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계좌를 개설한 신규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 둘 사항들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는 부담금에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부담금이 최초로 납입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에 대한 내용이 통지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의 최초 부담금에 대해 디폴트옵션 적용이 완료된 경우라면 2회 차 이후 부담금부터는 가입자 통지 및 2주간의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본인이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경영 성과급 등 다른 유형의 부담금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한 2주간의 대기 없이 즉시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영 성과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부담금들은 필요 시 미리 운용 지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월납, 분기납 등 빈번하게 입금되는 부담금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던 가입자의 경우, 동일 상품의 만기 자금에 대

해서도 2회 차부터는 통지 및 대기 없이 즉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그림 16] 신규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 방식

- 최초 부담금이 납입되는 시점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부담금에 대해서만 가입자 통지 후 2주 대기하며, 2회 차 이후 부담금부터는 가입자 통지 및 2주 대기 기간 없이 본인이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바로 운용



내 퇴직연금의 기본값을 정하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초판 1쇄 발행 2023년 4월 10일

초판 3쇄 발행 2024년 2월 2일

지은이 김동엽, 오은미

편집 몽스미디어

디자인 야생녀

펴낸곳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investpension.miraeasset.com)

주소 서울시 중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1 13층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언급된 기업들은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사례로 제시되었을 뿐, 투자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